

# 시나리오 2: 수희—주님이 요청하신 일을 내가 맡기에 충분할까? (요한복음 6:5~14)

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먹일 충분한 음식이 없음을 걱정했다.

요한복음 6장 5~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다음 원리에 대한 증거를 찾아 표시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구주께 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크게 키워 주실 수 있다.

- 이 구절에서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을 찾아냈는가?
- 제자들이나 그 아이는 자신들이 가진,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은가?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력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노력을 크게 키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면, 비록 여러분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안고 있을지라도 그분께 충분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셸 디 크레이그, “신성한 불만족”,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54쪽)

- “우리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에서, 자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구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려는 누군가의 노력을 배가시켜 주시는 것을 목격했던 예들을 생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